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 55, 1-3
 [화답송] 시편 145(144), 8-9, 15-16, 17-18(◎ 16 참조)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줄이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 2독서] 로마 8, 35, 37-39
 [복음환호송] 마태 4, 4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마태 14, 13-21

성가	8시 미사	입당 15	봉헌 213 513	성체 499 154	파견 44
	11시 미사	입당 15	봉헌 213 513	성체 499 154	파견 44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18주일(8월 3일)		연중 제19주일(8월 10일)		연중 제20주일(8월 17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안토니오(휘)	이엘리사벳(자영)	이바오로(명국)	김말가리다(미숙)
제 1 독서	정프란치스코(일환)	허라우렌시오(순구)	이바오로(명국)	심미카엘(태규)	강요한(신호)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정글라라(영희)	이콜롬바(정연)	정스텔라(애리)	심헬레나(승화)	김안젤라(영선)	손리디아(정옥)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말씀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자신이 남 부럽지 않게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그리 많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부족함이, 정말로 무엇이 모자라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비롯되어지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랜 유학생살을 마치고 귀국해서 그동안 굶주렸던(?) 한국의 산해진미를 많이도 먹었지요. 어느 밤이었던가요, TV에서 맛집 프로그램을 방영하던 것을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 나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고, 괜스레 허기가 지는 듯해서, 고민이 시작되었답니다. ‘아!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 말아?’ 현대 늦은 밤에 밤참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게 다 뱃살로 가잖아요? 고민이 엄청 되었지요! 그러다가 제가 옛날 문헌을 공부하는 지라, 옛말 따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라는 생각으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라면이 어찌나 맛있었는지요! 엄청 비싼 궁중 요리도 먹어 보았지만, 가장 싸다고 얘기를 하는 그 라면보다 맛있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하게 사는 비법일까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요리를 먹는 것만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싸구려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 일일까요? 행복은 외적인 ‘비교우위’ 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조건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향유(fruiti)’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의 부족한 현실에 마주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라도 생각하는 당연한 ‘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남들처럼

갖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아등바등 고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부족하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십니다.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어서,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셨다.” 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이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의 해법이 ‘무엇을 채우고 쟁취하는 일’ 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 먼저 하느님께 ‘감사하는 일’ 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삼’ 양라면을 끓이고, 운이 좋아 ‘계’ 란을 넣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는 또 다른 차원의 ‘삼계탕’ 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그 부족한 현실이,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광주리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승익 바실리오 신부
대궐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제1575호 연중 제 18 주일 2014년 8월 3일
예수님 뭇 물고기 한 마리, 빵 한 개!

생명의 말씀

열두 제자 뭇 물고기 한 마리, 빵 네 개?

오늘 복음을 제자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속이 많이 상할 만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인데, 예수님 뭇으로 물고기 한 마리와 빵 한 개는 드려야 할 테고, 나머지 물고기 한 마리와 빵 네 개로 열두 제자들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인데, 그것을 나눠주라니 우리는 먹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산법이 답답하고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계산이나 손익을 재빠르게 하는 것은 제자들 못지않게 저희도 잘합니다. 주일 헌금을 내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1만 원짜리도 아니고 5만 원짜리 한 장만 덜렁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빨리 성물방에 가서 다음 달 매일미사책을 천 원 주고 사고, 헌금 천 원을 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죽고 나면 십 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우리는 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까요?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모르는 사람이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호의로 기분이 좋아져서 본인도 뒷사람의 커피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명가량이 뒷사람의 커피값을 계산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커피값을 낸 것인데 받아서 기분 좋고, 나눠서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나눔은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눔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누려고 할 때 아깝다는 생각,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주저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어놓

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진 것이 별로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이나 위로,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하는데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크고 화려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곳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병원 교우회분들과 매년 성탄 때마다 불우 환우를 돕기 위해 1년 동안 모은 돈을 전달합니다. 작은 정성이 매일, 매주, 매달 모이면 1년 뒤에는 큰 힘이 됩니다.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사랑을 담은 행동으로, 넘치지도 남는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김지형 신부
일반병원사목위원회
삼성서울병원 원목사제

말씀의 향기

나는 삼고(三高) 중 이고(二高)라서

여행 중에 들은 가이드의 말이 자주 생각납니다. 모든 가이드가 싫어하는 게 삼고(三高) 즉, 고학력, 고소득, 고연령이랍니다.

고학력은 가이드의 설명이나 해설을 고쳐주느라 남들의 감탄과 감동까지 망쳐버리고 또 수능 문제도 아닌데 대충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늘 호강하는 고소득자는 특히 자연관광을 싫어하는데, 맛있는 음식, 자연뿐인 관광지과 지루한 해설, 불편한 침구 등에 불만과 짜증이 가득합니다. 안락한 일상을 떠나 사서 고생하자는 여행인데, 낯선 것과 마주치는 기대감과 호기심, 놀라움과 감동 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아 색다른 기분전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연령도 여간해서 안 웃는답니다. 웃겨서 분위기 잡으려는 가이드의 노력은 동정조차 안 한답니다. 더 웃긴 일을 너무 많이 겪어낸 고연령은 유머와 위트를 잃어버렸답니다. 우습지 않아도 분위기 맞추려 웃어주며 긴장을 풀어야 즐거운 여행이 되는데, 고연령일수록 자기도 안 웃고, 남도 못 웃게 하고, 웃기려는 가이드까지 맥빠지게 한답니다. 유머와 위트는 하느님이 주신 최고 선물인데도 말입니다. 애창곡이 ‘거짓말이야’ 인 친구는 비둘기도 여의도에서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우짚는다고 웃깁니다. 자기도 잘 웃고, 남을 웃기기만 해도 항상 기뻐하는 생활 신앙인인 그 친구가 생각나면, 저는 혼자서도 웃게 됩니다.

삼고는 하느님도 제일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하느님이 사명자로 뽑으신 이들은 한결같이 오만한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모세와 요셉일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최고 문명국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통치자)로서 최고 학문과 기예를 연마했지만, 처갓집에 빌붙어 짐승냄새에 찌드는 양치기 40년 동안에 왕자자격을 말끔히 세탁시킨 다음에야, 민족 지도자로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도 족장인 아버지의 특대를 받은 귀공자로 형들보다 우월하다고 자고(自高)했던, 그 오만과 우월감을 노예와 죄수생활로

13년간 다 세탁시키고서야 이집트의 총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어온 나머지 신앙의 허실을 알 만큼 안다고, 세상 무엇도 알만큼 안다고 자고(自高) 해온 저는 고학력, 고연령의 이고(二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소득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늘 제 자신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배워 너무 많은 나들로 꼭 찬 제 속은, 하느님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강론은 멍멍하고 성경도 늘 뻥합니다. 게다가 신교에서 개종했으니 저절로 비교와 비평도 합니다. “인간을 그럴듯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창조 첫날에 만드시지 왜 꼴찌로 지으셨을까? 그랬더라면 아담은 일주일을 꼬박 금식했어야 했고 이브를 먼저 지으셨더라면 출산 때 진흙 항아리가 터져 버렸을 거라, 그래서 하느님은 시인으로 지으셨다. 이브를 보자마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라는 절창시를 토해 낸 아담은 시인이라.” 는 등 혼자 상상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무수히 밀줄 친 성경을 새 것으로 바꿔 새로 밀줄 쳐가며 읽지만 속제하듯 읽고, 입에 발린 감사기도와 습관적인 미사참례. 제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느님은 “ ‘거짓말이야’ 를 불러봐! 네 친구를 시켜 네게 준 노래야.” 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유안진 글라라
시인, 서울대명예교수

성경산책(구약)

즈카르야서, 말라키서

즈카르야는 지난 주에 해설한 하카이의 활동에 거의 곧바로 이어집니다.(즈카 1,1) 하카이는 바빌론 유배를 견디고 돌아온 백성에게 시대의 징표를 해석하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즈카르야서 1-8장은 백성의 성실성에 호소하며, 하카이가 시작한 운동을 더욱 강화합니다. 귀환한 백성은 희망을 가득 품었지만 결국 서로 분열하는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즈카르야는 백성끼리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서로 해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고발합니다.(즈카 8,16-17)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호소합니다.(즈카 1,3-6; 7,8-14) 이렇게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는 옛 예언자들의 전승에 무척 밝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우리는 옛 예언자들의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즈카르야서 9-14장은 1-8장과 여러모로 대조되고, 더구나 9,1은 ‘신탁’이라는 머리글로 시작되기에 흔히 ‘제 2 즈카르야’ 라고 합니다. 이 후반부는 보편적 구원이라는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는 종국에 이 세상의 모든 백성과 유다가 “한 씨족처럼 되고” (즈카 9,7),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즈카 14,16-19) 그리고 제 2 즈카르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양떼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며(즈카 11,4-17),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며(즈카 9,9; 마태 21,5), 찢려 죽은 그분을 위해 여자들이 따로 곡할 것임을 예언합니다.(즈카 12,9-14) 제 2 즈카르야의 이런 메시아 사상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깨닫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 1 즈카르야와 제 2 즈카르야는 한편으로는 옛 전승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래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점에서 큰 조화를 이

루고 있습니다.

말라키의 시대는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지 이미 오래된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에서 의욕적으로 재건사업을 벌였고, 약간의 안정기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과거의 잘못에 빠지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전례의 참 뜻을 소홀히 하고(말라 1,6-14), 사람을 매수하고, 여러 가지 불충과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말라 2,17; 3,5) 이에 말라키 예언자는 강력하게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그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지니는 책임을 상기시키고, 생활을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말라키서는 예언서 전체뿐 아니라 구약성경을 마감하고, 신약성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의 ‘말라키’라는 이름 자체가 미래에 도래하실 어떤 분을 암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말라키 예언서의 “보라, 내가 나의 사자(=말라키)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말라 3,1)는 말씀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말라 3,23)는 말씀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11,10.14; 루카 7,27) 이렇게 말라키 예언자의 사업은 세례자 요한에게로 이어지며, 신약성경의 큰 시대를 준비합니다.

주원준 박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8월 3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송소피아(성은)	안마리아(은순)
	연	박피데스	김다윗(승우)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생	신마태오(현규)	최카타리나
	생	신마태오(현규)	이미카엘라/마리아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넷
	생	권글라라	정가브리엘라
8월 5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8월 7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생	성시간 성가대	익명
	생	야고보/미카엘	이바오로
	생	이정우	전수산나
8월 8일 금	생	김도미니코 신부님	채토마스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6	205	-	301
헌금	\$589	\$1,229.55	-	\$1,818.55

< 교무금 > \$2,045

정창희(7) 강수영(6) 정우송(9) 윤성진(6-7)
이정연(8) 변귀태(7) 박영자(1-12) 강신호(5-6)
장찬호(7-9) 이순자(6-7) 이건용(8) 김영희(8)
박호영(8)

< 성소후원금 > \$30

정창희(7) 박호영(8)

< Bishop's Appeal >

변귀태(7)

< 감사헌금 >

김순이 \$100

~~~~ 오늘 간식은 육아오스딩/아가다 가정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 성시간 : 8월 7일(목) 저녁 7시 30분
- ◆ 8월 9일(토)은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성령대회 관계로 아침미사가 없습니다.
-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의무축일)  
8월 15일(금) 저녁 7시 30분
- ◆ 약정하신 2014년 Bishops Appeal 을 8월말까지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사목회의 : 8월 3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평협회의 : 8월 10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방효익 신부님 여름 특강  
일시 : 8월 31일(주일) 오후 1시 - 3시 15분  
주제 : 공동체와 신앙생활  
준비물 : 성경  
문의사항 : 영성부장 707-696-7743  
\* 참가비는 무료이며 당일 점심이 제공됩니다.

- ◆ 제 20 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9일(토) 오전 8:30 - 오후 6:00  
주제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강사 : 차동엽 로베르또 신부님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은 성당에 아침 6시 50분까지 도착하셔야 합니다.(버스 출발 7시)

-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00을 주일학교 캠핑 기금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8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11-12장           |
|---------|--------------|------------------------|
| 2 구역    | 8월23일(토) 6시  | 엄성섭 시몬 덕               |
| 4 구역    | 8월23일(토) 6시  | 이종규 미카엘 덕              |
| 5 구역    | 8월24일(일) 10시 | Lake Chabot            |
| 7-2구역   | 8월17일(일)미사후  | Lake Chabot            |
| 8-1구역   | 8월16일(토) 5시  | 심연자 데레사 덕              |
| 8-2구역   | 8월16일(토) 12시 | UC Village Cross Rd. # |
| 9 구역    | 8월23일(토) 6시  | 이경섭 요셉 덕               |

- ◆ 향심기도 피정  
일정 : 8월 15일(금) 저녁 7시 - 8월 17일(일)  
장소 : Danville San Damiano 피정 센터  
지도 : 이승구 신부님(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비용 : 2인 1실(\$230), 1인 1실(\$280)  
문의 및 신청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 SF 성마이클 성당 청소년 기금마련 골프대회  
일시 : 8월 23일(토) 오후 1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 Oakland  
문의 : 정승식 요한보스코 415-203-0412

- ◆ 연도 안내  
2구역장 이규주 시몬 형제님의 어머니이신 이정재 마리아 자매님께서 8월 1일 선종하셨습니다.  
오늘 교중미사 후 연도가 있습니다.

-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요한마리아비안네(8/4) : -
  - \* 도미니코(8/8) : 김원조, 강길준, 김형철

| 안국학교 소식                        |
|--------------------------------|
| - 개강 : 9월 6일                   |
| - 등록비 : \$300/1년(교재, 행사참가비 포함) |